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Vol. 62 (2009 'WINTER)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 열린의정구현 |

도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경북 의정활동

# 개 회 사

## 이번 회기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시기에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쌀소비 촉진 홍보활동과  
도청이전지 비교시찰, 한우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  
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자료제출과 설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금융위기극복과 고용안정, 수출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앞선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민경제는 고용불안과 판매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안정 대책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월동기에 서민들의 생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도정질문, 각종 안건처리와 의원연수회 등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  
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찬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엄숙히 평가받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이 상 천

#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 제 235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26일 11:00 개최하여 9월 8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2회의 상임위원회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6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한혜련 의원, 윤창욱 의원, 송필각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비롯,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결산심사,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위원장에 황상조 의원, 부위원장에 윤창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 휴회기간인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도청소년수련원센터 증축 3억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3억원 등 총 30건 16억 1,996만원을 감액하여 야사종합복지관부설 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원, 소방장비보강 3억 2천여 만원 등 14억 236만 4천원을 증액(부기신설 포함)하고 나머지 2억 1,759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영어체험교실 설치 7억 8천만원 등 4건 19억 5,901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권인찬 의원, 박진현 의원, 이상용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 등 동의안 2건,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한편,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2009. 4. 7)에서 유보되었던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손진영 의원의 25인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의결되었으며,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3명으로 나타났다.

## 제 236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 9일 11:00 개최하여 10월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21회의 상임위원회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9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숙향 의원, 권인찬 의원)을 하였으며,
-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노욱 의원, 박순열 의원, 장병익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박기진 의원, 김지수 의원, 채옥주 의원, 이종원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3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이번 회기에 구성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에는 총 7명의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위원장에 김영기 의원, 부위원장에 최윤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 남부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위원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영학 의원이, 신규 위원에는 김지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010년도 예산 심의자료 수집을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 한편, 임시회 폐회 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키워드 창의적 리더십”(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이해”(손재권 경북선관위 사무국장)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과 의원상호간 유대강화를 위한 의원연수회(2009. 10. 19 ~ 20)를 개최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9월 18일 구미시민 운동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기관단체장, 전국 새마을지도자 등 1만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9월 22일 대구엑스코 인터볼고호텔에서 개최된 2009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9월 14일 도의회 전정에서 故나규택 도의원의 영결식을 의회장으로 거행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8월 26일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서 국군체육부대이전 건립을 위한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8월 3일 의장실에서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 이상천 의장은 9월 21일 도청에서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하여 대회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수, 감독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10월 1일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요금소에서 우리 쌀 소비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햅쌀로 만든 쌀떡(절편)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쌀 소비를 권장하였다.

▶ 이상천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은 8월 31일 인천광역시 송도메트로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출되었다.





▲ 이상호 부의장은 8월 18일 경상북도청 총무시설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09을지연습훈련 참관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김응규 부의장은 10월 14일 김천시 대항면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와 함께 지역주민의 곁에서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지방의원 겸직강화 관련 조례 개정 및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충청권남부를 아우르는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동남권 신국제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통영시 재래시장과 대우조선소 공업단지 등을 견학하여 재래시장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경산시 대동시온재활원, 영천시 새마을공원조성 공사장 등을 방문하여 미래의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 실태를 확인하였다.



## 교육환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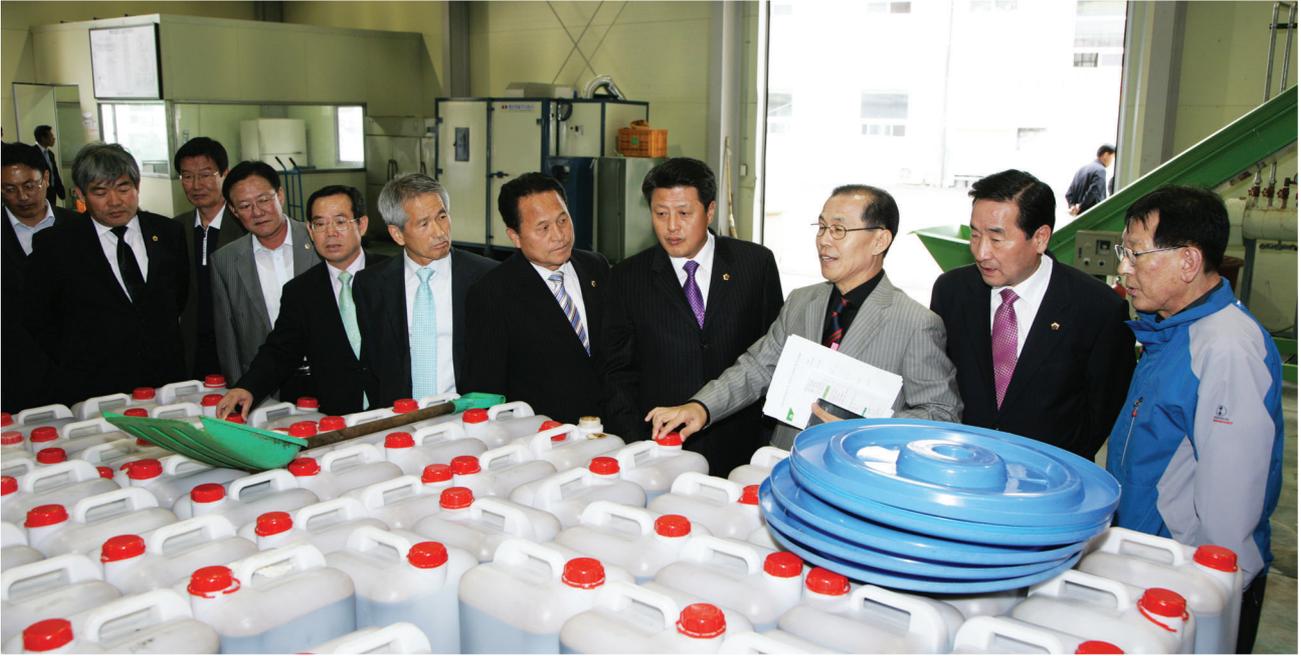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2009년 9월에 개장한 포항 영일만 항의 환동해권 물류거점기지 구축을 위하여 관련 업무 정보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영주시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시험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통상문화위원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관광의 메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장과 성읍민속마을 등지를 찾아 현장의 생생한 생활상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 현장인 안동시 지산동 생태문화기반조성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도 서민생활안정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하였다.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미 도청이전을 완료한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윤리특별위원회

2009년 9월 위원장인 故나규택 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었던 위원장을 김천 출신 백영학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한편 정원 9명 중 1명이 결원된 자리에는 새로운 위원으로 성주출신 김지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경북경제 활성화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청송출신 김영기 의원, 부위원장은 비례대표 최윤희 의원을 선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9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연구주제로 소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입법조례안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의원 54명은 10월 19일 경주 대명콘도에서 2009년도 경북도의회의원 연수회를 참석하여 이날 연수회에서 조벽(동국대 석좌교수)의 "21세기 키워드 창의력 리더십"에 대한 특강과 손재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조례개정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방유봉 위원장(울진)



박병훈 부위원장(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만용 위원(의성)



김숙향 위원(비례)



김영택 위원(구미)



김지수 위원(성주)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욱 위원(봉화)



윤영식 위원(예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최윤희 위원(비례)

# Steering Committee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 제235회 임시회에서

● 8.2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하고 활동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위원회는 기간 내 도 집행부 및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8.27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세금이 한푼 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방의원겸직금지강화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하도록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겸직신고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수산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2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농어업인은 예외로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제236회 임시회 회기는 10. 9 ~ 10. 19(11일간)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전처리 등 일정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2009. 10. 19일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 16 ~ 11. 25까지 10일간으로 하되,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11. 16일 하루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감사반 편성은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전체위원 15명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문서확인 등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수는 7명으로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그 설치 목적으로는 우리 도와 대구·경남·울산은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 하남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으로 지지하면서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신국제공항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자칫 신국제공항건설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회는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충남과 충청권 남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지역경제활성화 비교 현지견학 실시



이상태 위원장(울릉)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박진현 위원(영덕)



손덕임 위원(비례)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정경구 위원(안동)



황상조 위원(경산)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 제235회 임시회에서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도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정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도정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되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경북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사업을 비롯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주문하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는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삶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도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과 외래강사에 대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육원 직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관리의 공백이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시책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09년 7월 1일부터 국가사무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식·약품분야 인·허가 등 일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와 소방력 강화 등을 위한 경상북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비확보 및 청사건립 등 사업추진의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도청이전사업은 도의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내적, 외적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전남과 경남지역의 재래시장과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비교 현지 견학을 실시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 과학진흥국,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인 경북 개발공사와 출연, 출자기관인 (사)경북교통연수원, (재)포항 지능로봇연구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시책 추진사항과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 2010년도 예산심의 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도정 방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주민 건강증진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인한 환경 오염, 에너지 소비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에 대하여 사회전반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가 교통문제의 해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성장, 에너지 소비의 감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거시적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위원장 이상태)는 또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동안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통영 중앙재래 시장, 거제 대우조선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현지 방문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을 다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현지 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태수)를 방문 하여 위원회 운영 등 의정활동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통영 중앙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영업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수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거제 대우조선해양(주)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 보는 한편 대우조선의 영업현황 및 규모, 사업전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전체구역 75km<sup>2</sup>의 해수역과 갯벌로 구성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의 자연생태관과 순천만천문대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화 방안 등을 모색 했다.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



이시하 위원장(문경)



권영만 부위원장(봉화)



김대호 위원(구미)



김수용 위원(영천)



김숙향 위원(비례)



김중천 위원(영주)



송필각 위원(철곡)



윤창욱 위원(구미)



이우경 위원(경산)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심사의 방향과 예산 운용을 중심으로 지방재정법령, 법규, 재정계획 등 각종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위사업별로 그 내용을 분석함은 물론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기본 목적을 중시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성, 투명성, 책임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중사자 수기집 발간과 도청소년수련센터 증축사업의 예산을 각각 5백만원과 300백만원을 감액하여 에이즈예방활동지원 및 야사종합복지관 부설주민복지센터신축사업에 각각 5백만원과 300백만원을 증액토록 심사·의결하였으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자원봉사단체리더 워크숍 및 2009자원봉사한마음축제 사업비를 각각 30백만원 감액하여 제남세 일제정리업무추진 여비 및 舊보건환경연구원청사 리모델링사업비에 각각 10백만원과 50백만원을 증액토록 심사·의결하는 등의 예산심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조례 등 안전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안 제5조제1항제2호) 일정규모의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건물점유 시점을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한 건물로 완화(안 제40조)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안 제2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34조는 일부수정의결을 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또한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매입(40,905㎡)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심사는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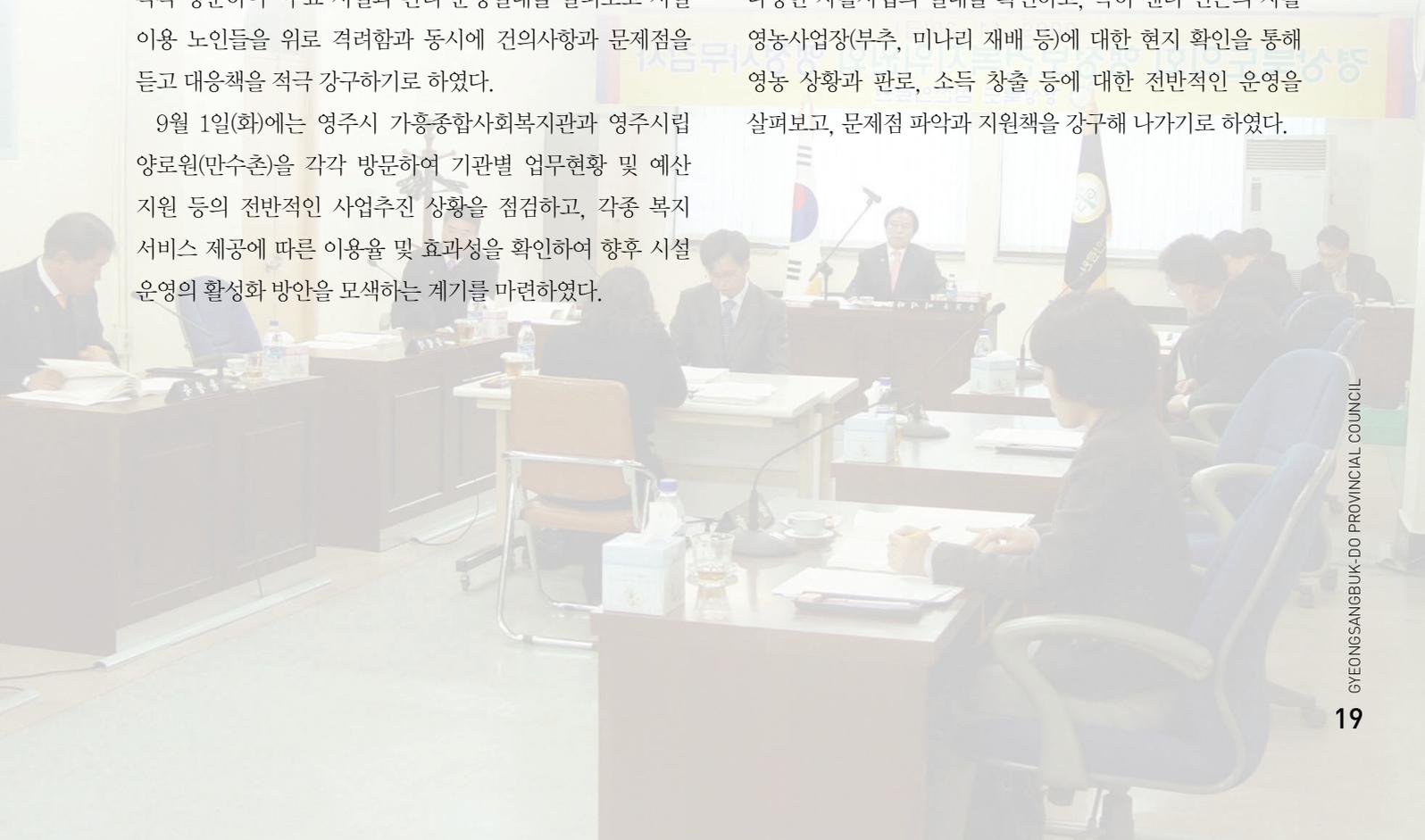
이와는 별도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실태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시설의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8월 31일(월)에는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다문화복 카페 프로그램 진행 현장을 찾아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어서 봉화군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을 각각 방문하여 주요 시설과 관리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시설 이용 노인들을 위로 격려함과 동시에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9월 1일(화)에는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과 영주시립 양로원(만수촌)을 각각 방문하여 기관별 업무현황 및 예산 지원 등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율 및 효과성을 확인하여 향후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어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에서 감사 대상기관을 8개소(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로 정하고 주요 감사사항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복지정책의 추진실태와 도민회합과 선진화추진상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한편 2일간에 걸친 현지확인에서는 첫째 날인 10월 15일(목)에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의 새마을운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서 오후에는 경산시의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장애인들의 재활프로 그램 현장을 찾아 이들을 위로·격려함과 동시에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날인 10월 16일(금)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인 영천시 새마을공원 조성 공사장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가지고, 금호읍 소재 영천지역자활 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의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센터 인근의 자활 영농사업장(부추, 미나리 재배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영농 상황과 판로, 소득 창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과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경상북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백천봉 위원장(구미)



김만용 부위원장(의성)



권인찬 위원(안동)



김영기 위원(청송)



김응규 위원(김천)



김지수 위원(성주)



박순범 위원(철곡)



전찬걸 위원(울진)



채옥주 위원(비례)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예산이 기정예산 4,893억 300만원의 25.0%인 1,221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6,115억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 예산 5,938억 500만원의 23.0%인 1,367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7,305억 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후 변화 대응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당면 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11억 3,864만원의 0.04%인 51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11억 3,915만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72억 730만원의 3.07%인 2억 2,122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74억 2,852만원으로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긴급한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7,015억 5,400만원의 2.4%인 659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조 7,675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과 세출예산에서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운영비 등에 있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일부 신증치 못한 예산편성이 있었으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목적이 지정된 목적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국정과제 교육분야사업 추진,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재정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고심한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다.

또한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는 현행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새로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환경분쟁 조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2007. 4. 12(대통령령 제20008호)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정비하고, 이제까지 잘못표기된 용어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 중에 일반위원에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특별위원의 구성원에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도립공원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주민 및 종교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개정안 중 “제2조제8호 중”은 해당 조문의 표기의 잘못으로 “제3조제8호 중”으로 수정하고, 제6조 중 “시장·군수”는 이미 제5조에서 “시장·군수”를 “군수”라 한다라고 약식 표기로 한만큼 “군수”로 수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수정 가결 하였다.

**이어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심사에서 도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 기관 감사에서는 지역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하수도 등 환경행정 서비스의 추진실태와 독도 영유권 보존사업 등 해양개발 정책을 집중 감사키로 하고 도교육청 및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확정지었다.

이어서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자연휴양림 관련 규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관련 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로 판단 하였으나 【별표】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은 조례의 관련 조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제4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타 시·도 주요 기관 방문 및 현장 비교 견학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전남 여수), 광양컨테이너부두(전남 광양), 완도 수목원(전남 완도) 등 타 시·도의 위원회 관련 주요 기관과 현장을 방문했다. 첫째 날인 15일 오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여수·광양항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지난 9월 개장한 포항영일만항의 환동해권 물류 거점기지 구축을 위하여 관련 업무 정보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오후에는 광양컨테이너부두와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견학하였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전남 완도에 있는 완도수목원을 견학하였으며, 수목원 조성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 등 관련 자료는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심층 비교 분석하여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수목원 개발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제정, 농업현지 확인 활동



김영만 위원장(군위)



박노옥 부위원장(봉화)



남종식 위원(청송)



박기진 위원(성주)



윤영식 위원(예천)



이종원 위원(상주)



이준호 위원(청도)



정무웅 위원(울릉)



조동만 위원(영양)

증액한 421억 2백만원이며, 농수산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16억 2천 3백만원 대비 7.1%(391억 7천9백만원) 증액된 5,908억 2백만원이다.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FTA·WTO 파고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위원별로도 활발한 질의와 건의가 이어졌는데, 남종식(청송) 위원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액은 도전체 예산증가율 13.6%보다 많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를 당부하는 한편, 새마을 박람회장 농업관 설치시 농업변천사 등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고, 조동만(영양) 위원은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과 블루베리를 연구목적으로 재배 및 우수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무웅(울릉) 위원은 고령농가에 공급하는 리프트형 전동운반차를 시군에 고루 배정할 것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준호(청도) 위원은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공급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하면서 연구 개발 사업비를 확대편성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종원(상주) 위원은 새로운 작목 보급전에 시험재배와 경영분석을 거치는 등 기술보급 방향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경북농민 기술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기진(성주) 위원은 농촌여성소득기술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당초예산으로 추진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박노옥(봉화)위원은 농촌여성소득기술지원사업의 100% 보조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 제235회 임시회에서

- 8월 27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추경예산 규모는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이 기정예산 396억 7백만원 대비 6.3%(24억 9천5백만원)

추진은 자부담이 없음에 따라 농업인의 사업추진 의욕 저하와 부실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정금액 자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윤영식(예천)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국·도비 24억원)되고 270명의 인력이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10월 1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및 심사를 하였다. 주된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으로 인한 고병원성 전염병 확산시 전국에서 축산업 점유비중(한우 1위, 닭 2위)이 높은 우리 도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김영만 농수산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가축전염병 방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산물 검사업무의 미비점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조례제정 등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36회 임시회 회기중인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운영실태 점검,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지 등 농업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여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였다.

첫째 날, 10월 14일 오전에는 전국에서 참외생산량의 71%를 차지하는 성주군에 지난 2007년도에 설치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산물의 집하·선별 등 종합적인 산지유통기능을 갖춘 시설의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유통센터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후에는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지”를 방문하여 박기동 잠사곤충사업장장으로부터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 확인에 이어 영주시 안정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시험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시설·장비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둘째 날인 10월 15일 오전에는 2008년도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옥수수 가공품 생산으로 연간 5억원의 소득을 달성하고 있는 군위군 소보면 소재 “군위한방찰옥수수작목반”을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군위군 의흥면에 소재한 “대구경북농금농협 군위읍로가공공장”을 방문하여 가공공장 운영실태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공공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후에는 지난해 농산물 7,512천불을 수출한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소재 “경북통상주식회사(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산물수출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현지확인시에 수렴된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2010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 밝히면서, 특히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시설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의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한혜련 위원장(영천)



이재철 부위원장(상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순열 위원(청도)



방유봉 위원(울진)



백영학 위원(김천)



안순덕 위원(의성)



장세현 위원(포항)



최윤희 위원(비례)

이번 현지방문에서 천혜의 자연자원과 유교문화 등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미흡한 유교 문화권개발사업장인 청송 숙박휴양거점사업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관광지개발사업장인 영양 석보 두들마을, 일월 주실마을, 체류형 관광을 국민의 생활 일부로 승화하기 위해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방문하여 조기집행 성과와 문제점 등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 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16~17 세기 오지인 청송에서 발상하여 조선말기 청송 백자로 중흥을 누리고 일제 강점기 일본사기제품과 대적까지 한 청송백자 전승지를 방문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 이어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 지난 5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동분과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통상문화위원회 최윤희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금번 추경은 지난 4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동분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회복세 유지를 위하여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지원, 고용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 먼저, 제234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 7월 22일부터 7월 23일(2일간)에 걸쳐 하계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문화관광개발사업 등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줄 것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경북관광 기획방송홍보비의 경우 경북관광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맞게 동남아 등 해외홍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제조업창업기업투자보조금 14 억원은 제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전년에 비해 사업비가 7배가 증가한 것은 사전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포항근로자복지회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추경 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비 13억원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각의 관광상품이나 음식 문화 관광자원화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어서 최근 경제난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중인 기업 육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통상문화위원회 최윤희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이 조례안은 벌써 제정되어 도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책하였다.

#### 한편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경상북도의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투자통상국 등 3개 부서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등 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실시기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메카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친선교류 및 문화관광산업 개발현장과 주요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지 방문에서 제주도의회와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문관광단지과 서귀포관광미항 개발현장,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제주 올레길 체험, 트리아트 뮤지엄, 더마파크 등 주요관광지를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였으며, 특히 더마파크의 징기스칸 일대기 마상공연의 경우 드라마 선택여왕을 계기로 신라문화와 화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를 주제로 한 새로운 테마관광을 도입 해볼 것을 집행부에 적극 권장하는 등 경북관광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하였다.

이어서 10월 16일 경산시 육상경기장에서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축제인 제19회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생활체육동호인 선수와 생활체육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과 이번 대회가 단순한 기량을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즐기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 연이어 제23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 10월 2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관한데 이어 21일에는 경상북도 선수단 본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출전한 만큼 정정당한 승부를 통해 상위권 입상 등 옹도 경북의 위상에 걸 맞는 성적 달성과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육상, 정구, 태권도 등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출전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살리기 국책사업현장 방문



김기홍 위원장(영덕)



김영택 부위원장(구미)



고우현 위원(문경)



박영화 위원(고령)



손진영 위원(영주)



이헌준 위원(예천)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방재국 소관으로 세입부문은 5,301억 5천2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4,609억 4천9백만원보다 692억 3백만원(15.01%)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7,891억 1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880억 9천6백만원보다 1,010억 2천2백만원(14.68%)이 증액된 예산과 소방본부 소관으로 세입부문은 37억 9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억 6천1백만원보다 6억 3천6백만원(20.1%)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1,718억 3천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1,597억 8천7백만원보다 120억 4천9백만원(7.54%)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예산 계상 타당성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은 대원으로서 최소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이어야 하나 2년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자 선발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이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정원만큼 추천하도록 하여 배수경합으로 인한 탈락대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이제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됨에 따라 의소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는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금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가능물량은 총 해제가능총량인 31,462km<sup>2</sup>의 30%인 9,437km<sup>2</sup>이나, 전체 그린벨트 517,758km<sup>2</sup>에 비하면 1.8%에 불과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80~100%로 해제가능 면적범위를 확대해줄 것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어 많은 불편이 따랐음, 이들에게 각종 세제의 감면 등 직·간접적 보상대책과 중복규제지역에 대한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 제235회 임시회에서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함께 주민숙원 사업인 군위 「동명~부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기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심의내용은 건설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8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관계공무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협회에서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업체 살리기 대책 확대, 일반대형공사 공구별 분할 발주 확대,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을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업체 살리기 대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입찰 공고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권장사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일반대형공사 공구별 분할 발주 확대 건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시 연장 또는 공중분할이 가능한 공구를 최대한 분할하여 적격심사입찰대상공구(300억원 미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확대 건에 대하여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50% 이상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홍 위원장은 당장에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끝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월 31일주민숙원사업 현장인 「동명~부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 및 현장관계자들로부터 공사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반영 추진키로 하였다. 이도로는 총연장 14.2km, 폭 18.5m인 4차선도로로 총사업비 2,028억원을 들여 팔공산 관통터널(3.7km)을 비롯해 교량 16개소 등이 건설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기공식과 함께 오는 2016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21.3km에 이르는 두지역간 거리가 7km가량 짧아지고, 운행시간도 현재 36분에서 12분 이상 단축될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 및 국도5호선과 영천 및 상주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영천과 대구 동구지역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와 더불어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 경상북도 경관조례 제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낙동강살리기 국책사업 현장 등을 찾았다.

경상북도 경관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안, 경관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의 대상규정 및 경관사업 계획서 제출,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 새로운 경관의 개성있는 창출을 통하여 경상북도 전역을 아름답고 효율적인 경관으로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15(목)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현장인 안동시 지산동 생태문화기반조성 사업장을 찾았으며 이날 현장에는 안동시청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현황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방과 중앙이 수레바퀴처럼 함께 노력해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 개념을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경북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량의 사업지구와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경북도의회 및 경북도 차원에서도 애로사항 해결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과 사업 성공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토지 및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도민들에게 정당하고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0. 16(금)은 군위군 효령면 「장군~마시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집행 추진현황과 지역민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 및 도정에 적극 반영키로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기 완공을 하여줄 것과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



황상조 위원장(경산)



윤창욱 부위원장(구미)



권인찬 위원(안동)



김대호 위원(구미)



김숙향 위원(비례)



김지수 위원(성주)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욱 위원(봉화)



박병훈 위원(경주)



백영학 위원(김천)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경식 위원(포항)



전찬길 위원(울진)



정무용 위원(울릉)

# Special Committee Budget & Accounts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 지속적인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 제235회 임시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경상북도는 도청소년수련원센터 증축 및 농작물연작피해경감 자재지원 각 3억원, 녹색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2억원, 포항시충훈탑이전 건립지원 1억원, 자원봉사단체리더워크샵 및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각 3천만원 등 30건 16억 1천996 만원을 삭감하고, 영천 야사종합복지관 부설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원, 경북순환테마열차홍보마케팅 등 2억원, 김천 충훈탑주변정비사업 1억원, 청송사과종합처리장 물류비지원 8천만원 등 19건 14억 236만원을 증액하여 가결하고, 도교육청은 포항 이동고 교장사택임차비 1억원과 영어체험교실 설치 7억 8천만원, 영어전용교실 설치

5억 4천만원, 도교육정보센터 5억 3천900만원 등 모두 4건 19억 5천90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에 편성하였던 4조 8,137억원보다 5,905억원(12.27%)이 늘어나 개정이래 최초로 5조원이 넘어서는 규모로 총 5조 4,042억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7,015억원보다 660억원(2.4%)이 증가한 2조 7,675억원 규모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심의에서는

-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낙후 지역 발전, 실업난 해소 등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심의에 주력하였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지출 규모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였다.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전개



이현준 위원장(예천)



정경구 부위원장(안동)



고우현 위원(문경)



권인찬 위원(안동)



김중천 위원(영주)



박노옥 위원(봉화)



박순열 위원(청도)



백영학 위원(김천)



윤영식 위원(예천)



장병익 위원(군위)



조동만 위원(영양)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 지난 9월 21~22일 기간동안 전남도청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조성을 비롯한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05년 11월 도청이전을 완료한 전남도청의 신청사를 면밀히 둘러보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예방하고,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조방안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충남도청이전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비롯하여,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대책 및 국비확보 방안,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최근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에 미칠 영향 등 전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충남도청 이전 지원 특위활동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도의회 차원에서 상호 공조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준 특별위원장은 「도청이전 신도시는 균형과 발전, 새로움이 조화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 도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리 특별위원회

## 지난 9월 위원장 유고로 윤리특별위원장에 백영학 의원 선출



백영학 위원장(김천)



윤창욱 부위원장(구미)



김영기 위원(형송)



김지수 위원(성주)



박기진 위원(성주)



손덕임 위원(비례)



손진영 위원(영주)



이준호 위원(청도)



장병익 위원(군위)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영학)는

● 10.19일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월 위원장인故나규택 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었던 위원장을 김천출신 백영학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지난 2008년 7월 31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정원 9명 중 1명이 결원된 자리에는 새로운 위원으로 성주출신 김지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 경북경제활성화와 국제화 시대 부응을 위해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김영기 위원장(청송)



최윤희 부위원장(비례)



김영택 위원(구미)



박진현 위원(영덕)



이우경 위원(경산)



이준호 위원(청도)



채옥주 위원(비례)

###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 제236회 임시회에서

● 경북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청송출신 김영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최윤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영기 위원장은 동남권 신국제 공항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영남 지역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북과 대구는 우리 지역에 인접한 영천시 금호읍을 신국제공항 최적입지로 주장하였으나, 영남권 전체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경남 밀양을 수용하였다.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부산임에도 부산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덕도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부산만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주장하고 있다. 가덕도 입지는 우리 경북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이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북과 대구, 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이 되어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조건인 경남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영천 한방특구 내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 요청

한혜련 의원(영천)



영천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한의학의 세계 각국이 새로운 의약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한 작금에 있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트렌드의 부각으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게 됨으로써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경북 한방산업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대구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핵심거점의 탄생을 의미하며 동시에 경북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불릴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인 신서지구에 인접해 있는 영천시로서는 다양한 양·한방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약초의 재배와 생산, 유통을 주도하여 한방의료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환경변화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적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한방특구로서의 제역할을 감당해낼 인프라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Bio 산업 및 의학의 첨단기술의 집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유통업소가 150개소에 이르고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한약재 도매시장인 영천이 제대로 된 약초 종합처리장 시설이 마련되지 못하여 마냥 전근대적 방식으로 포전매매나 흥정에 의한 거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천시는 지난 2005년 9월에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0월 12일에는 한약재전시관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한약재 유통량이 7,600톤으로 국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한약유통업체 150개소와 제약회사 20개소, 한약제조업 16개소가 밀집해있는 국내 한약유통의 거대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약의 유통 중심지이며 한방특구지역에 약초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매기능설치와 함께 약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설설치를 통하여 고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약초유통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신뢰할 만한 유통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한약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초 종합처리장이 건설되면 선별포장 등으로 불량약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과 차별화된 경매로 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명한 한약재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남에 있어서 영천한방특구가 한약재유통의 투명화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한방의 첨단화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영천에 전국 최초로 약초 종합처리장 건립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북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비상(飛上)하려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차원에서 한의학유통의 합리화와 약초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필요한 신약과 한약개발에 쓰이는 약재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약초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웅도 경북을 알리고 녹색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최 촉구

윤창욱 의원(구미)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소속 윤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차질 없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보릿고개라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잘 살아 보자”라는 전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환경개선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최빈국이었습니다만 훌륭한 지도자 “박정희”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노력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과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새마을박람회는 “새마을,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새마을을 배우기 위한 저개발국가의 지도자와 유학생,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UN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라”고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저개발국가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본받아야 할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의 절대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북도가 새마을 운동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의 시대입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은 녹색혁명을 주도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등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낭비와 체면의 문화를 녹색문화로, 경쟁과 분열의 사회를 화합의 녹색사회로, 무질서와 퇴폐, 불건전한 의식을 건강한 녹색의식으로 변화시키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지 40년이 되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는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고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뿐만 아니라 ‘안동국제탈춤축제’, ‘풍기인삼축제’, ‘봉화송이축제’ 등 시군별로 다양한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확산방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를 비롯하여 도내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내외국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금년도에 경북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300만 도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천 의장님이 전국 시도지사단 회의 등을 통해 15개 시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8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는 전국단위 행사로 개막식에 VIP, 중앙기관장, 시도 기관단체장, 새마을단체, 주한외국대사, 외국자매도시 등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옹도 경복을 알리고 녹색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개막식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화장장 이용요금 차별화 폐지 촉구 및 도립화장장 건립 요청

송필각 의원(칠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칠곡출신 송필각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역현안의 하나인 도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내 화장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화장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경북의 화장률은 45.8%로 전국 화장률에  
비해 낮지만, 2000년의 20%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화장장은 포항 2개소와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울릉에 각 1개소로 9개 시군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는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많은 도민이 인근 대구시의 대구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요금입니다. 대구화장장의 이용요금은 대구  
시민은 9만원인데 비하여 경북도민에게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구화장장을 이용한 경북도민은 2,460건  
(전체 10,135건)으로 전체 24.3%로 약 11억 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6월까지 1,157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립화장장을 이용한 대부분 대구시민의  
최종 장지는 다시 도내의 봉안시설이나 공원묘지 또는 가족  
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문화의 특성상 대부분이 고향선산이나 가족묘지와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경북도민이 대구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민은 화장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고향과 선산이 있는  
도내로 오는 반면에, 경북도민의 입장에서는 5배의 많은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두가 경북이었습니다. 고향과  
선산이 경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시립묘지가 도내에 있으며, 대부분의 대구시민이 도내의  
봉안시설과 가족 또는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도지사는 대구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화장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핏줄이 같고 고향이 같은 도민들이 화장장 이용  
에서 차별받아서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내 화장장 이용요금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주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요금과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근 거리에  
있는 의성군 화장장은 4배, 김천시 화장장은 6배, 경주시립화  
장장은 무려 8배를 받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화장률에 비하여  
도내의 화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차별은  
화장시설이 없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차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도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차원  
에서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한 도립화장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  
들의 거센 반대로 화장장 건립이 어렵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심각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칠곡군 동명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대구도심생활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명면은 전체 면적의 56%가 그린벨트 지역(36,020ha)이며, 전체 공원묘지 230.7ha 가운데 대구시의 가족묘지와 공동묘지가 168.7ha로 73.1%나 됩니다. 자연녹지(그린벨트)와 1981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 지정한 공동묘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심화되어 왔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된 대구시 북구 칠곡지역이 인구 25만명의 거대한 신도시지역으로 발전한 반면, 동명면은 인구 6천4백명의 초라한 농촌지역으로 변하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동명면 지역까지 연장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시정에서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동명면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서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의 다른 지역과 구미지역까지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미래 발전계획을 구상하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면 연장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동명지역의 학군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0분 거리의 좋은 학교를 두고서도, 다른 학군이라는 이유로 진학을 못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군조정이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경북개발공사의 골프장사업의 문제점 시정촉구

권인찬 의원(안동)



안동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권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뿐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산이 많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 대비 임야 면적은 65%인데 도내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72.5%나 될 정도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은 21% 수준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도 금년은 예년에 비해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이 울창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발생이 심하여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도민, 관계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산불 발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한 돌풍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골프장 건설이니 뭐니 하여 무분별하게 나무를 도려내고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수익성도 확고히 보장되지 않고, 공익적 가치도 없는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수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이 5곳에 5천 647억원, 산업단지 4곳에 1천 929억원, 영천 청통골프장 630억원, 위수탁 사업 3곳에 277억원 등 총 8천 483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개발공사 수권자본금 1천600억원보다 5.3배나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3년까지 경북도내 골프장은 9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월말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은 모두 47개소입니다. 경북은 경기도의 139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46개소, 전국 제일의 휴양 관광지인 제주도 45개소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골프장사업을 벌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개발공사는 영천 청통면 송천리, 원촌, 지일리 일대에 73만 9천㎡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중제 9홀 규모로 약 22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불과, 2년 만에 18홀 규모로 확장·변경하면서 무려 3배에 가까운 630여억원의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골프장사업 확장 건설로 인해 청통면민들은 농수용과 식수용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총 63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간업체들도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달에 평균 1~2건씩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포항시 송라제니스 CC, 김천시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CC, 김천시 애플밸리 CC 등은 금융한파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주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설립의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아서 더 이상 건설할 필요가 없는데다, 당초부터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업체들도 무더기로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공기업이 뒤늦게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경우,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대중제 골프장은 지역 세수 확보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제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제 골프장은 특별소비

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면제받고,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조차도 회원제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경영은 이미 작년에도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청통 골프장사업은 애초부터 수익성도 보장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전국에서 임야면적이 두 번째로 많은 우리 경북의 산림을 훼손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산불과 홍수까지 야기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다워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만 일으키는 골프장 사업을 전면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도차원에서 해파리 피해사례 명확한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촉구

박진현 의원(영덕)

영덕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에 해파리떼가 출몰하면서 어장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이러한 피해가 동해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 우리나라 인근의 해파리 개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액도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양자강 하류에서 발생한 해파리가 조류를 타고 한국연안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며 6월 20일 이후 서·남해안에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예년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의 개체가 출현하는 등 이상 증식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해안까지 북상하여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파리떼의 습격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산소부족과 수온상승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그 피해지역 및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관련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충남·전남도의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에 해파리로 피해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공식요청, 해파리 어업피해대책반 구성·운영 및 해파리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경북도에서도 동해안 어민들이 해파리로 인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체계적인 대책이 한시바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8월말에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를 포함한 지원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차원에서 현재까지 해파리로 인한 조업중단 피해사례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어민들의 지원방안으로 영어자금 이자감면, 상환기한 연기 및 해파리 매입방안, 각 어선에 해파리 파쇄기 설치 등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차원의 전면적인 피해상황파악과 더불어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안과 검진 및 시력관리사업 지원 요청

이상용 의원(영양)



영양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근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시력관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곧 평생의 시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많은 책을 보느라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고, 휴식시간에도 게임이나 컴퓨터 등을 가까이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눈 질환의 특징은 하나 이상의 질환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에는 시력이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사춘기 전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안과 검진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절한 시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긴장감과 스트레스, 불안감이 심해지고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하나 이상의 질환이 병행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초등학교들의 적절한 시력관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원제도가 전무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군 입암초등학교의 경우 총학생수 71명 중에서 안경착용대상이지만 안경을 미착용한 학생수가 19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18명이고,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이 1명입니다. 동 지역 일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수 97명 중에서 안경착용대상인 학생수는 29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며 그 중에서 안경미착용 학생수가 총 18명으로 저소득층학생이 4명,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수가 14명입니다. 물론 도내 모든 시군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영양군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시력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세심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안과병원의 부재와 지원제도의 부실, 학부모들의 무관심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안과현황은 청송군과 영양군의 경우 전무하며, 칠곡군을 제외한 도내 군도 1개소 정도로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구강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및 흉부검사, 키, 몸무게, 시력측정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치과(보건소, 불소도포 등) 검진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지원이 많으나, 실제 안과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이나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양군 일월초등학교 이훈영 교장선생님, 입암초등학교 이승채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절감하여 백만원 정도의 자체적인 경비로 안경착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은 기타 농어촌 초등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분 교장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과질환 및 적절한 시력관리는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지나 자체의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안과검진 및 지속적인 시력관리를 위한 안경착용을 대대적

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욱더 시력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습장애 등 2차적인 문제들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안과병원 하나 없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그 사이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시력관리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불합리한 국립공원 일부구역 해제로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촉구

박기진 의원(성주)



성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야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관리는 공원 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간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마저 금지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는 반드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목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특히, 가야산은 1972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정 당시 경계인근의 수륜면 백운리, 봉양리와 가천면 법전리 주민들은 개인소유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동안 각종 생활상의 불편과 각종 규제를 어디 한번 해소연할 데도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묵묵히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의원은 가야산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구역 재조정문제를 2007년도 제219회 및 금년도 제234회 도정질문에서 지적하고 문제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함은 물론 국립공원 구역재조정의 추진실적 및 관련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구역 재정비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규정상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원칙을 깨고 이번에 5년 만에 구역재조정이 결정되어 내년에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본 의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국립공원 해제지침에 따르면 공원 구역내 산재하고 있는 농경지와 주거지를 일부는 해제안에 적용되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륜면, 가천면 지역 560필지, 565천㎡는 공원으로서의 존속기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총량제라는 명분에 묶여 해제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구역 내 주거지에서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화장실도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 및 주거시설, 농경지의 영농형태 변화 등은 엄격한 규제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업무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어려움을 일일이 귀담아 듣고 소통하며 그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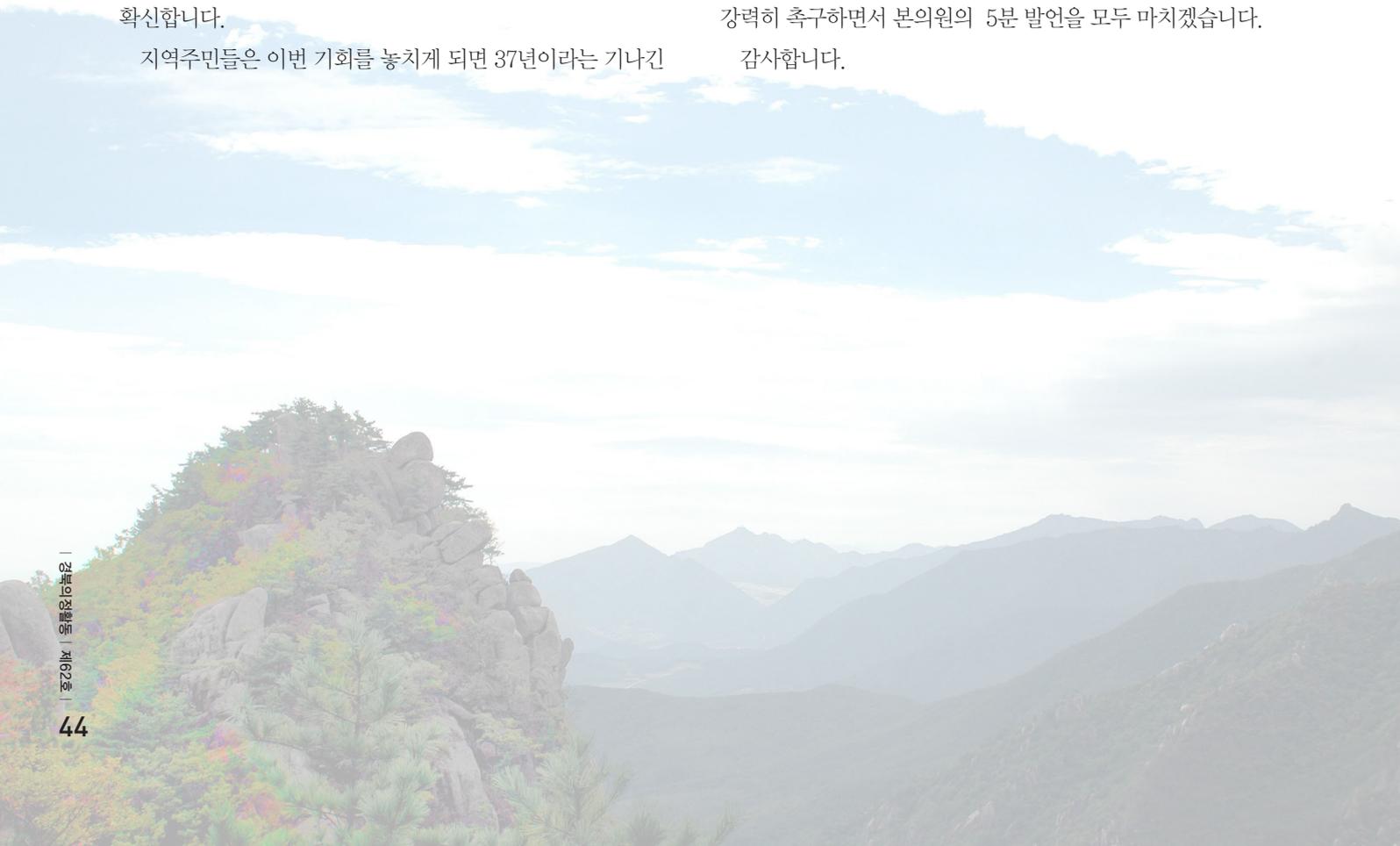
본 의원은 국립공원총량제 지침도 지키고 절박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산1번지 76만㎡, 107-2번지 4만㎡,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1-1번지 185만㎡ 등 도유림 266만㎡ 중에서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제 요구하는 면적 565천㎡와 대체 지정함으로써 평소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유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으로부터 헤어날 기회를 잃고 또 다시 10년의 기약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렇듯 한 맺힌 절규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우리 도민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최적대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특수전염병 전담부서 조속한 시설 및 기존 관련부서 기능 강화 촉구

김지수 의원(성주)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플루 환자 급증으로 전국이 어수선하고,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북도내 구미에서도 한 여중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이후, 9월말 현재 도내 감염 환자 수는 총8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을 내렸으나,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예산과 시설·장비, 조직 면에서 볼 때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특수전염병에 대처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신종 인플루엔자가 10월과 11월에 더 유행할 것에 대비하여 더 이상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염병 대응체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공기로 감염되는 특성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를 수용하는 공간과 일반병동 간에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음압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국가 격리병원 중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음압시설은 도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의료원 별로 신종플루 환자 수용공간을 일반병동과 격리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환자로 북새통인 작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방법마저도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노르-바이러스 등 신·변종전염병이 지금까지와 같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동시다발로 창궐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료공간은 물론, 전염병 검사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더욱 염려하는 것은 최근 유행하는 특수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정작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염병 관련 부서와 인력은 1998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최근의 다양한 신·변종전염병에 대처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불과 6명의 연구진이 전염병을 비롯하여 식중독 원인 병원체 검사와 환경미생물 검사 등 지나치게 넓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각종 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염병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78종에 걸친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염병 진단 기능은 28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련 검사와 조사, 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수진단 관련 부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도교육청도 특수진단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40여 만명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종플루는 추위에 전염성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도내 「보건환경연구원」 단 한 곳 뿐입니다.

신종플루를 포함한 각종 특수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기능만이라도 갖추어진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뇌에 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저출산 대책 및 지원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청

채옥주 의원(비례)



포항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 신문지상과 언론 매체를 보면 ‘저출산 문제’가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똑 그칠 정도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2007년 2천 100명까지 달했던 출생아 수가 2008년 5월에 1,900명으로 감소하고, 금년 5월에는 1,700명 선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쌍춘년인 2006년과 황금돼지 해였던 2007년은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 했지만, 결국은 작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과 협조하여 출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성들이 출산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조그만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 2008년 12월 정례회에서 여러 뜻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뜻을 모아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6조는 “도지사는 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예산을 보면 출산장려금 7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불과 할 뿐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전국이 출산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온갖 아이디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상북도는 1982년 통계조사 이후 초등학교 수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지나치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8월, 제22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입맛대로 극히 일부만 시행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분명히 물은 바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집행부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것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그렇게 할 것이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도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근한 예로 도 홈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관련 조례가 통과된지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출산' 담당 직원들의 업무분장에는 "셋째아 이상" 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둘째아 이상" 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까?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영양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00만원, 영천시 3번째로 많은 510만원을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모범지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봅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독도지키기를 위한 각성과 분발 촉구

이종원 의원(상주)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소속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저녁 9시 KBS 뉴스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서는 초등학생용 독도교과서를 만들었으나 외교통상부  
부터 잘못된 곳이 15곳으로 지적되었으니 이를 수정하여  
교육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이유로 회수하여 다시 제작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10월  
12일 저녁 9시 KBS 뉴스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경  
상북도교육청에 알아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  
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 도교육청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회신된 답변  
자료 요약은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속기  
록에는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독도 지키자” 며 만든 독도 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도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도 교과서는 2008년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정  
도서로 승인하여 2009학년도부터 경상북도 초등5, 6  
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차씩 지도할 수 있도록 배부함.

2. 외교통상부(중앙부처) 지적사항

- 오류 부분 지적 : 15부분

- 수정할 부분 : 명백한 오류 5부분은 정오표 공문 발송  
(2009.10.12)하였으며, 의견 검토가  
필요한 10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임(대면 토론 2회 및 재택 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임).

-기타 : 현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위촉  
하여 수정 보완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3. 외교통상부(중앙부처)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 연도나 명칭 오기 등 명백한 오류 5부분은 2009. 10.  
12(월) 오전 11시 45분에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초등  
학교에 정오표를 발송하였으며, 학술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외교통  
상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의 검수를 받아 완성할 계획임.

4. 잘못된 교재를 연말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

- 잘못된 교과서를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  
정오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한 후,  
담당 교사가 재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2009.  
10. 12(월) 11시 45분 공문 발송).

이상과 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 도교육청에서 독도 지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교과서를 제작하여 활용한 것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 매우 바람직한 교육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2세 교육을 위한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교과서안이 완성되었을 때 중앙 관계 부처의 심의를 받아 완벽한 교과서로 이용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둘째 : KBS방송에서 지적하기 전 2009.4.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6개월 동안 대면토론 및 재택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이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자라나는 2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정신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에서 지적한 14시간 후 시군교육청으로 정오표공문을 보내는 기민성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을 때 잘못된 교과서를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잘못된 부분을 고쳐 학생들이 올바른 독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일한 늦장대처로 6개월동안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셋째 : 모든 학생의 교과서에 정확히 정오표가 붙여질까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위하여 정오표에 의하여 정정해 보니 본의원도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 과연 학생들에게 맡겨 둔다면 틀린 교과서에 의한 독도 지키기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 :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제23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비치된 울릉도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 있었음에 이의 빠른 시정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5분 발언을 하였던 바 교육감 이하 간부들께서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였음에도 독도에 관하여 지난번과 같은 안일한 대처가 재발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독도에 관하여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하는 마음 허탈한 심정이며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진정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세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독도를 지킴에 있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온 세상이 몹시 놀라게 할 만한 대외행사가 필요하겠지만 평소는 조용히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빈틈없이 꼼꼼히 내실을 다져 갈 때 독도는 진정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관계단체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지방 노동현안 대처방안 및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 등

김숙향 의원(비례)



**질) 코오롱 구미공장, 포항DKC, 진방스틸 분규 등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답) 구미 코오롱과 한국합섬 문제는** 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비상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노사갈등으로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건으로 그동안 도와 구미시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을 중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안타까우며, 향후 경제가 회복되어 회사의 사정이 나아지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을 때는 해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 경주할 계획임.

또한 포항 DKC, 진방스틸, 경주 재활용선별장 문제는 포항 DKC의 주요쟁점은 사용자의 민주노총금속연맹과의 중앙교섭 참여 및 가압류 철회문제이고, 진방스틸은 정리해고 철회 및 단체협약해지(안)철회문제로 한국주철관이 진방스틸 인수 후 경영악화로 26명을 정리해고한데 따른 것이며 경주 재활용선별장 문제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철회 및 15명 동시고용, 노조전임자 1명 인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로서 위의 3개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시·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질)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의 민간 위탁에 대한 입장과 노후 상수관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은?**

**답)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과 시설개선을 위해 우리 도는 동해안 5개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시범사업

으로 전국 5개 시·도 24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중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으로는 상수도사업은 공공성이 최우선인 공익사업으로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전제로 전적인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통합운영 기구 설립과 운영방법을 마련하여 수돗물 관련 분쟁과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노후 상수관 개선 계획은 현재 전체 관로 14,231km중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은 4,005km(28%), 노후관로는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증대와 누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어려운 시군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국비 지원 건의할 계획임.

**질) 방학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리원들에게 휴업급여 지급과 보수지급 근무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답) 학교급식 종사자는** 정규직 영양교사 415명, 조리사 327명, 비정규직 조리원 3,643명이고 조리원 근무일수 245일이며 급식일수는 180일(방학근무 8일, 주차일수 48일, 급식준비일 9일 포함) 정도이므로 조리원 근무일수를 300일로 연장할 경우 인건비 84억 7천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증대되므로 내실있는 학교급식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은 도 부담분 278억원에 대한 처리계획은?**

**답) 도 일반회계의 부담분에 대하여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일반회계 지원은 없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이미 집행된 포항, 안동, 구미 경산시의 학교용지 매입비의 소급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은?**

**답) 경북도내 공립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은** 5,821명으로 학교업무 및 직종별 특수성에 따라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실태 조사 및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질)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 일반회계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77억여 원 집행하였는데 도 부담금 278억여 원에 대한 처리방안은?**

**답)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은** 2002~2008년 12월말까지 총 19개교, 557억 6,000만원이며 경상북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 278억 7,500만원이며 법률적 의무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대·과밀 학급 해소와 인재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음.





2009년 10월 9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지방 노동현안 대처방안 및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 등

권인찬 의원(안동)



**질) 조기집행, 지방세 감소 등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대책과 국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방안은?**

**답) 경상북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2009년도 총규모 13조 4,172억원(당초예산기준, 시군포함)이고 재정자립도는 27.7%(전국평균 53.6%)임.

재정악화의 대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와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이미 편성한 투자사업은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할 계획임.

국비확보대책은 연초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국비 확보 전담 특공대를 조직하여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각 의원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질의자료 제공 등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음.

**질)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요구해 온다면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대처 할 것인지와 현재 계획대로 도청이전이 추진된다면 이전에 따른 추진 계획과 자원조달 방안은?**

**답) 행정구역 개편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구현할 미래의 틀을 새로 짜는 것으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은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으로 광역자치단체와는 관계없음.

도청이전추진사업은 현재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로드맵에 의거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사 준공은 2014년 6월 완료 이전 계획임.

자원조달 방안은 소요재원이 총 2조 5천억으로써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거 국비지원 1천억 원, 도유재산 매각,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 도비 3천억 원, 사업시행자의 공영개발방식

으로 민자 유치 2조 1천억 원 등 임.

※ 지방채 발행(2천억 원) 등 지방재정 부담이 많으므로 국비지원 적극 건의

**질)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앞으로 발전방안은?**

**답)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도립대학 발전방안을 동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도립대학의 현실은 신도청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등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

도립대학 4년제 승격 방안과 현재 전문대학 체제를 유지 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대학으로 특화하는 방안, 경북대·안동대 등 국립대학과 통합 후 지역별 특화 대학 육성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 마련할 계획임.

**질)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불법·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업자들은 물론 지역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척결방안은?**

**답)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공직비리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과 연계된 영농지원사업, 사회단체 행사 및 사회복지 사업비 보조금을 보조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허위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으로 일부 작목반대표가 편취한 사례적발임.

뇌물수수 등 범죄 처분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09. 6. 25.)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수수 시 경징계 (감봉, 견책)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토록 하였고, 음주운전이나 부패척도를 가늠하는 뇌물 수수·공금횡령 등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문책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감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였음.

**질) 독도수호사업관련 예산삭감 내지 유보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와 간담회를 가진 사유와 국비예산 확보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 독도예산의 편성 후 삭감 등 변경은 없었으며,** 사업시행은 유보가 아닌 문화재보호법상의 ‘형상변경허가’ 절차 수행 중에 있음.

외교통상부와 간담회 개최 이유는 외교부와 경북도간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先제의로 개최(09.7.8)함.

국비예산 확보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회·기획재정부·문화재청 등 관련부처 국비 예산 지원 요구 및 국회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조속 개정 건의, 국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조속 재구성 건의 등을 할 계획임.





2009년 10월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농업예산현황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관련

박노욱 의원(봉화)



**질) 농업예산 비중이 갈수록 감소되는 이유와 농업예산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답) 농업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도 농업예산 중 75%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비중 6.7 → 5.9%로 낮아짐. 앞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내년도 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소득증대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별·품목별 지원에서 조직·마을단위의 상향식 포괄·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생산중심의 지원에서 유통-가공-관광 등 융·복합화 사업에 투자 확대할 계획임.

**질) 쌀값하락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및 공공비축미 처리를 위한 대북 쌀지원을 정부에 건의 의향은 ?**

**답) 산지 쌀수급 상황은** 지난해 이어 풍작으로 금년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큼. 정부 및 도차원의 쌀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대책은 정부투입 자금 외에 농어촌 진흥기금 207억원 별도 확보 긴급 지원하고 벼 재재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지원도 검토에 있으며, 공공비축미의 대북지원에 중앙건의 의향과 관련하여 정부의 안보 및 정책적 사안으로 지자체로서 한계가 있음.

**질) 시군에서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의 유지 비용과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답) 범용 CCTV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범죄사각지대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밀집지역, 간선도로 등에 설치하고 있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지원대책은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하고 있음.

**질) 최근 3년간 농어촌 주택개량이 신청량에 비해 지원이 54% 정도로 부족하므로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안과 도내 노인가정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농가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계속하여 노후불량주택 159,336동, 33,617억원(지원조건 : 동당 4천만원,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율 3%)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중앙 융자재원이 한정되어 신청농가에 비해 배정량이 적은 실정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농림수산식품부)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저소득층 개보수 지원방안은 경제사정으로 신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는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부분개량, 증축할 경우 동당 2천만원 이내 융자금 지원가능 하므로 향후 희망농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질) 신청사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과 유관기관 유치 대책 및 도청 신도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복안은?**

**답) 신청사 건립비 국비지원 노력은** 청사 신축비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국비 지원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음.

유관기관·단체 유치방안은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총 186개중 대구소재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73개)는 동반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북소재 대구경북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자율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임.

기존도심 공동화방지 대책으로는 신도시와 기존도심과는 공간적으로 차별화 기능부여 및 특화방안을 모색하고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토론회나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 중에 있음.

**질) 쌀국수 학교급식 확대 등 우리 청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답) 도내 급식학교 및 급식원원은 975개교, 38만명으로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쌀국수 등을 월 2회 정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행사시 쌀로 만든 음식을 제공, 간식제공 시 송편 등 쌀 제품 제공, 생일 등 가정행사시 떡케익 먹기, 식단 편성 시 떡국 등, 쌀을 이용하는 음식으로 구성하고 학부모 및 학생에게 우리 쌀 우수성 교육 및 쌀 이용 홍보와 아침 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있음.

**질) 봉화여중과 봉화여고에 대한 폐교활용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과 폐교 매각대금을 통합된 학교환경개선자금으로 우선 투자할 의향은?**

**답) 봉화여중과 봉화여고에 대한 폐교 활용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이유 및 향후 활용계획은 재산 규모 및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인 및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봉화교육청사 및 도서관 이전 부지로 검토 중에 있음.**

폐교 매각대금을 통합된 학교환경개선자금으로 우선 투자할 의향은 관련 규정에 의거 폐교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조성 사업비로 해당 지역교육청에 지원하고 통합된 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통폐합지원금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009년 10월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도청이전 추진 및 지구온난화 대책, 청도 소싸움 경기장 활성화 등

박순열 의원(청도)

**질) 신청사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과 유관기관 유치 대책 및 도청 신도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복안은?**

**답) 신청사 건립비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은 청사 신축비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국비 지원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음.

유관기관·단체 유치방안으로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총 186개중 대구소재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73개)는 동반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북소재 대구경북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자율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임.

기존도심 공동화방지 대책은 신도시와 기존도심과는 공간적으로 차별화 기능부여 및 특화방안 모색하고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토론회나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 중에 있음.

**질) 지구온난화 대책관련 산림분야에 있어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등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산소배출과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

**답)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대책**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 강화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산림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도내 산림공무원 130명을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지명, 수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사법수사 기동반」을 별도 운영함.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분야 대책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나무심기 확대와 경제림육성단지(66개, 685천ha)를 중심으로 목재자원, 소득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내실

있는 조림사업 추진,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질) 친환경농업을 빨리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추진력이 미약해지는 이유와 아열대기후로의 변화에 따른 온난화 적응 품종 개발 및 농업기반 구조개혁 등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책은?**

**답) 전남**은 친환경인증이 비교적 용이한 벼농사가 중심이고 우리 도는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 특작 중심임으로 양적 비교가 어려움.

그동안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토양환경개선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하고 있음.

아열대화 적응작물 선발을 위한 양앵두, 블루베리 등 13종의 적응성 시험수행하고 있고 60여 종의 아열대 작물 유전자원 수집, 적응성 검토 중에 있음

농업소득의 정체, 도농간 삶의 질 격차, 농촌인구 감소·고령화가 농촌기반 구조개혁에 가장 큰 문제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내년도 우리 도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역량 집중하여 농촌마을 개발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질) 청도 소싸움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투자비용 지원과 레저세 감면 등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청도 및 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소싸움 경기의 상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장준비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50여억 원의 군비 지원 시·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레저세 감면은 향후 소싸움장 운영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축산발전기금을 반영할 상황인 만큼 청도군에서 감면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음.

**질)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특수교육여건 개선방안은?**

**답)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은** 법정 정원이 1,040명인데 교과부에서 배정한 정원은 756명으로 284명이 부족하나 확보율은 72.7%로 전국 평균 55.5% 보다 훨씬 높고, 정원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증원할 수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

2009년 특수교육 여건 개선 36개 사업에 예산 33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1억원이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

**질) 통·폐합을 통한 통합학교지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1개면 1학교 원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답)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악화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으로는 학부모의 1/2이상 동의, 통학거리, 도서벽지,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수가 본교 50명 분교장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지역 중심학교 육성할 계획임.





2009년 10월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인각사 복원 정비 등

장병익 의원(군위)

**질)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지역진출로 인한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등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특단의 대비책은?**

**답)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는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유통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대형소매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보호대책은 범대책 협의체 및 사전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유통선진화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및 동네 소매점포의 스마트샵화, 중소 유통강화자금 지원으로 자생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 지역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음.

**질) 실제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인상지원 방안 및 피해 예방 대책 및 피해방지단 확대, 수렵장 설정 등 개체수 효율적 조절 방안은?**

**답)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방안 및 대책으로 시·군 수렵장 운영 수익금을 농작물 피해보상에 적극

활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 국비 지원 건의 및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시행할 계획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인상 및 피해예방 대책은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피해방지 기술개발·보급, 농민 자부담(40%) 인하, 피해예방시설 국비지원 확대 지속 건의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함.

피해방지단 확대, 수렵장 운영 등 효율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방안은 '09년 포항시 등 15개 시·군 272명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과 야생동물 적정 밀도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렵장 확대 운영할 계획임.

**질) 삼국유사의 집필지인 인각사의 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체험 학습시설 건립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원계획은?**

**답) 인각사 복원 중창과 관련하여** '02년부터 '08년까지 1~4차 발굴조사(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완료하였으며 '08년~현재까지는 5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물전시관 건립, 체험학습시설 등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사업(1,368억원)이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었음.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과 연계하여 인각사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역사문화유적지구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질) 폐교가 관리부실로 우범·탈선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대한 견해와 지역 정서에 반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대책 및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향은?**

**답) 폐교가 관리 부실로 우범·탈선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견해는 노후 폐교 건물 철거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시설물 정비, 주변 환경 개선,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등**

폐교 유지 관리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지역 정서에 반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고 대부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할 계획임.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은 매년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활용 가능성, 보존가치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교육청별로 자체활용, 대부 등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활용 방안을 추진할 것임.



의/장/단

C h a i r   G r o u p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은 8월 27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에 참석하여 민주평통자문위원은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소외 계층대상 자원봉사 등 주요사업과,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적극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8월 31일 인천 송도메트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11대 후반기 회장으로 재선출 되어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재선출해준데 대하여 감사와 함께 앞으로 1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7일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의 신국제공항은 어디에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동남권 신국제공항포럼」에 참석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공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9월 15일에는 경북도의회 앞마당에서 열린 임시회 등원 중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나중택 의원 영결식」에 참석하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9월 29일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주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을 협의하였다.

9월 30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포항 위덕어르신 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10월 1일에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요금소(출구)에서 우리 쌀 소비 행사의 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및 경북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 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및 경북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0월 21일은 한나라 경북도당사에서 「여성위원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근래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26일에는 울릉 사동항에서 「독도평화호 취항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독도평화호의 취항을 계기로 전 국민이 독도수호 의지를 새로이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10월 23일은 도청강당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외에도 9월 16일 포항새마을기념관에서 개최된 새마을기념관 개관식 및 새마을 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10월 28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주관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노력에 격려

**이상호** 부의장(경주시1, 한나라)은 9월 9일 경주조선온천호텔에서 개최된「경도일보 창립1주년 기념」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여론을 선도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도일보 창립 행사를 축하하였다.

9월 11일에는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 「2009경북민속문화의 해-민속축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6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광인과 행사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 영천 금호강 둔치에서 개최된 「제2회 경북 식품박람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행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어, 10월 16일 경산육상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9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함께하라고 강조하였다.



「민방위대 창설 제34주년 기념식」에 참석,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

**김응규** 부의장(김천시2, 한나라)은 9월 20일 상주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0차 경북지구JC 특우회 우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며 경북JC 특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참석자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9월 2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방위대 창설 제34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 지킴이의 토대인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민방위 유공자 및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9월 25일 구미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된 「2009년 지역순회 척수장애인협회 재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고 협회 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0월 15일 김천파크호텔에서 이루어진 「일본오사카 도민회 고향방문단 환영회」에 참석하여 오사카도민회와 경상북도의 유대강화를 통한 경북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당부하고 방문단을 격려했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32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생방송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활력화 대회」에 참석,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협력하여 농업발전에 기여**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문경시2, 한나라)은 10월 13일 문경새재 사과축제행사장에서 푸른농촌 희망찾기라는 주제로 「농업인활력화 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협력하여 문경 농업 발전에 앞장서자고 하였다.

10월 15일 문경시 및 시의회 관계자와 함께 산북면 지내1리에서 열린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마을회관이 휴식의 장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소로 적극 이용되기를 당부하였다.



**「2009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앞장 당부**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봉화군2, 한나라)은 9월 24일 봉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봉화군민체전」 행사에 참석.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군민들의 화합 하는 한마당 잔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9월 26일 봉화읍 내성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2009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정일사과작목반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 당부**

**권인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안동시1, 한나라)은 8월 31일 북후면 장기리에서 개최된 「정일사과 작목반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친환경액비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면적 확대와 선별의 규격화, 출하시기 조절, 신선도 유지 등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9월 17일에는 옥동에서 지역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비영리 민간단체 「나누리 재단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나누리 재단의 출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문화센터와 쉼터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게 되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앞장에 노력**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영덕군1, 한나라)은 9월 5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소재 영덕풍력 발전단지 내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영덕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9월 11일 남정면 봉전 1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와 함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준공으로 노인들의 휴식 및 담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드민턴 선산클럽 화합대회」에 참석, 화합의 장이 되기를 강조**

**김대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4, 무소속)은 9월 13일 산동중학교에서 열린 「산동중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산동은 구미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하며 산동중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10월 10일에는 선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배드민턴 선산클럽 화합대회」에 참석.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제13회 의성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의성 만들기 호소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성군1, 한나라)은 9월 29일 의성군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의성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회원들에게 격려와 감사함을 표했다.

10월 9일에는 의성문화회관에서 1,0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3회 의성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의성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청통면 종합복지타운 준공식」에 참석, 주민들의 많은 활용에 최선을 당부

**김수용**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9월 3일 청통면사무소 옆 부지에서 열린 「청통면 종합복지타운 준공식」 행사에 참석, 종합복지타운은 청통면의 복지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반기며, 주민들의 많이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25일에는 영천 금호강 둔치에서 영천시장, 시의원, 각계내빈 및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회 한약축제」 행사에 참석, 영천한약축제는 영천시가 2005년 한방특구도시로 고시된 후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있는 한약축제는 한방특구로서의 특성과 화합의 축제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진방스틸지회 투쟁문화제」에 참석, 조합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김숙향**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비례대표)은 9월 16일 포항진방스틸지회에서 열린 「진방스틸지회 투쟁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0월 21일에는 왜관 경북과학대에서 경북일반노조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 투쟁사업장 집중순회투쟁 출정식」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2009 청송군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 장애우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강조

**김영기**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청송군1, 한나라)은 10월 8일 청송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청송고등학교 기숙사(청운학사) 준공식」에 참석해 “청운학사의 준공을 통해 청송고등학교가 농촌의 열악한 교육·문화적 환경을 최대한 극복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10월 20일에는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1,000여 명의 장애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9 청송군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해 장애우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에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참석, 쌀 소비 권장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김영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군위1, 한나라)은 지난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요금소 출구에서 개최한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영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쌀을 알리고 쌀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대국민 쌀 소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품질 쌀 생산 육성시책과 쌀 소비를 위한 새로운 수요개발을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명문고 육성설립연구용역 공청회」에 참석,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길 당부**

**김영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구미시3, 한나라)은 9월 25일 노인의 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인동동에 소재한 경로회관과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관내 어르신들에게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10월 8일에는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구미시 학교장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과 함께 「명문고 육성설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구미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1004 행복나르미 발대식」에 참석, 집배원 행복나르미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

**김중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지난 8월 21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베토벤 바이러스 in summer」콘서트에 참석. 오케스트라의 수준높은 연주를 계기로 선비의 가락과 숨결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6일에는 영주 가흥종합복지관에서 「1004 행복나르미 발대식」 행사에 참석.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등 함께 나누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집배원「행복나르미」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활성화 교육」에 참석,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강조**

**김지수**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지난 9월 8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활성화 교육」에 참석하여 무농약과 천적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친환경농법을 실천해온 농민들을 격려했다.  
9월 22일에는 200여 명의 민·관이 동참한 가운데 선남 문방단지의 (주)모아에서 실시된 「성주소방서 긴급구조 훈련」에 참석해 이러한 훈련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방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 안전지킴이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 행사」에 참석, 경북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비권장**

**남종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청송2, 한나라)은 10월 16일 대구 유통단지내 올브랜 주차장에서 개최한 경북도내 5개 시·군(봉화, 청송, 영양, 영덕, 울진)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경상북도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를 권장하였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경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주평통 성주군협의회와 부산기장군 협의회간의 교류행사」에 참석, 두단체간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민주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박기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성주2, 한나라)은 11월 2일 성주군 성주웨딩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성주군 협의회와 민주평통 부산기장군 협의회간의 교류행사에 민주평통 성주군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 축사를 통해 두단체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민주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본 교류행사는 2004년도부터 성주군과 기장군의 민주평통 협의회가 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상호교류 행사를 개최해왔다.



###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 행사」에 참석, 경북우수농특산물 홍보

**박노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봉화1, 한나라)은 10월 16일 대구 유통단지내 올브랜 주차장에서 개최한 경북도내 5개 시·군(봉화, 청송, 영양, 영덕, 울진)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에 참여하여,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경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경주시 새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당부

**박병훈** 통상문화위원회 위원(경주시2 한나라)은 9월 2일 「경주시새마을회관준공식」에 참석하여 이번 새마을회관의 건립을 계기로 내일을 만드는 희망인 새마을정신을 더욱 가슴 깊이 새겨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9월 6일 서라벌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경주시 자율방범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생업에 바쁜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대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원들의 단합된 마음처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 「대구·경북 자율방범대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지역발전의 밑거름 되어 줄 것을 당부

**박순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칠곡군2, 한나라)은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칠곡군 연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지하철이 동명까지 연장 운영되어 대도시권 출·퇴근 및 관광객 수요급증으로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가 절실한 만큼 철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에는 「대구·경북 자율방범대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대민봉사 등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9 한우왕 전진대회」에 참석, 한우명품브랜드 개발에 앞장서자고 강조

**박순열**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청도군1 한나라)은 9월 1일 인터볼고호텔에서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 회원 1천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년도 한우왕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쇠고기 개발과 사료값 인상 등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있는 축산농가를 격려하면서 안전한 한우명품브랜드 개발에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9월 4일 청도군 이서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서면민 화합한마당축제」에 참석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서면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역설하였다.



###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계기가 되길 강조

**박영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1, 한나라)은 9월 22일 다산면 평리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여하여 축하와 함께 마을회관의 준공으로 더욱더 이웃간 단합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10월 12일에는 덕곡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령소방서 개서 후 처음으로 열린 체육대회인 만큼 이번 행사가 의용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강조하였다.





**「영해향교 추계석전제」에 참석, 옛조상들의 충효정신을 되새김으로서 군민 애향심 고취 당부**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덕군2, 한나라)은 9월 5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풍력발전단지 내에 있는 「영덕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번 전시관 개관으로 영덕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선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9월 28일 유림과 영덕주민 200여 명이 함께한 「영해향교 추계 석전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옛조상들의 생활풍습과 충효정신을 되새김으로써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제7회 트라이애슬론전국대회」에 참석, 울진을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강조**

**방유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10월 1일 「울진군 후보보건진료소준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건진료소 설치로 말미암아 지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보건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0월 11일 울진군 후보면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7회 트라이애슬론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울진 지역은 해양스포츠경기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졌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하자고 강조하였다.



**「제9회 한·중 서예교류전 개막식」에 참석, 양국간 친선교류 발전 당부**

**백영학** 통상문화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9월 18일 「새마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라 지역경제침체가 심각하지만 새마을운동정신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 내자고 김천시 새마을단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10월 9일 김천시 승격 60주년 기념으로 김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9회 한·중 서예교류전개막식」에 참석하여 서예라는 공통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류전이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만큼 양국간에 우호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앞으로 양국간 친선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송정동 체육회 간담회」에 참석, 송정동 체육발전에 앞장 서 온 관계자들을 격려**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구미시1, 한나라)은 8월 31일 구미 대성지 일원에서 개최된 「송정동 체육회 간담회」에 참석해 LG주부배구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 송정동민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온 체육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0월 8일에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구미지역 명문고 육성설립 공청회」에 참석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이 구미에 모여들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식 개관식」에 참석,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에 기여 당부**

**손덕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9월 17일 새마을 운동 관계자와 시민 등이 자리한 가운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포항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민족의 가난과 절망을 번영과 희망으로 바꾼 근대사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창조한 신화의 도시이며 앞으로 새마을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저탄소녹색성장 과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제2의 새마을운동을 다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9월 18일 포항 시민 등 3,500명이 자리한 「포항 영일만항 개장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포항제철 건설로 '제1의 영일만 기적'과 더불어 포항영일만항이 개장함으로써 세계물류 중심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포항은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며 포항 시민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 「전국지방의회의원 연수회」에 참석, 지방의회 입법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용사례 발표로 국회의장 우수상 수상

**손진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주시2, 한나라)은 9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의회의원 연수회에서 「지방의회 입법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용사례」라는 의제로 의정활동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정책적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9월 2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영주 가흥동 소재 「영주노인전문요양원, 안정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도내 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제57주년 재향군인의 날」에 참석, 안보의식 확립에 기여한 유공회원 및 관계자 격려

**송필각**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칠곡군1, 한나라)은 9월 3일 왜관 시장에서 열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왜관시장 비가림 시설사업의 준공 및 점등식」행사에 참석. 시장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재해예방 및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0월 8일에는 칠곡군 교육문화 복지회관에서 열린 「제57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재향군인회가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유공회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명품의성마늘 대구홍보판매행사」에 참석, 의성마늘의 우수성 홍보활동 전개

**안순덕**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8월 29일 대구시 수성구 한샘교회광장에서 열린 「명품의성마늘 대구홍보판매행사」에 참석하여 탁월한 맛과 향을 지니고 저장성이 강한 의성명품마늘을 대구시민에게 직접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의성황토쌀, 마늘소 등 의성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 11일 「서 의성농협유통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이번 유통사업소준공에 따라 지역의 농산물의 유통이 더욱 원활해져서 지역소득증대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2009년도 예천한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행사주관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격려

**윤영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2, 한나라)은 9월 11일 진호국제양공장에서 개최된 「2009년도 예천한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한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0월 7일에는 예천군 용궁면 대은1리 마을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주민들의 교류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축하하였다.



###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석,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봉사자 및 관계자 격려

**윤창욱**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2, 한나라)은 9월 17일 구미시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두운 부분을 위해 일하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0월 14일에는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불우이웃사랑 일일호프」 행사에 참석. 행사를 주최한 공단2동 청년회와 참석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실찬 브랜드 조직화 리더농업인 워크숍」에 참석, 예실찬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

**이상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양군2, 한나라)은 8월 31일에는 영양사과인 “예실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과 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예실찬 브랜드 조직화 리더농업인 워크숍」에 참석하여 영양군관계자 및 사과재배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예실찬” 브랜드 가치제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 “예실찬 브랜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영양고추, 세계의 향신료화’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된 「2009 H.O.T(Health, Origin, Taste)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여 홍보부스를 찾아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청정영양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국내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영양군 농특산물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1회 울릉군생활체육대회장기 친선축구대회」에 참석, 축구 활성화로 군민 일체감 조성에 기대 당부**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울릉군1, 한나라)은 9월 26일 울릉 저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열린 「제1회 울릉군 생활체육회장기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울릉군 체육회 관계자 및 축구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구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9월 29일에는 울릉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무지개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및 통일시민교실」에 참석하여 소통과 참여의 열린 통일문화를 만들어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9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에 참석, 봉사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인 및 관계자 격려**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문경시1, 한나라)은 9월 16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9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곳에서 봉사과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인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9월 24일에는 문경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문경대학 별암축제」행사에 참석하여 축제를 통해 문경대학과 우리 지역주민의 뜻깊은 화합이 장이 되길 바란다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환경 조성 당부**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9월 12일 경산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 지역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10월 8일에는 경산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행사에 참석하여 “저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과 임신·출산·보육지원의 강화 등은 물론,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달라”고 당부하였다.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 환영만찬」에 참석, 경상북도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역군으로서 역할 강조**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상주시2, 한나라)은 8월 27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북도출범식」에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에 경북도회의가 타지역 회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하였다.

9월 22일 대구인터불고엑스코에서 해외자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이국만리 타국에서 민간외교관으로 세계만방에 코리아를 드높이고 있는 해외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경상북도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사별면민 체육대회」에 참석, 어려운 농촌에 신바람과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도록 당부**

**이종원**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1, 한나라)은 9월 5일 상주시 이안면 이안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이안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금번 체육대회가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하고,

9월 12일 상주시 사별면 사별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사별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어려운 농촌에 신바람과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녹색성장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동참 강조**

**이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청도2, 한나라)은 대구일보 주관 「환경대상 시상식」 환경단체부문에서 새마을 운동 청도군지회를 대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새마을운동 청도군 지회는 2000년부터 앞장서 지역환경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친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이 녹색성장 사회로 가는 토대가 될수 있도록 더 많은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7일 경운대학에서 개최한 「녹색새마을운동에 대한 UN 사무부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도군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홍보하는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4회 예천 전국한시백일장」에 참석, 유림 및 한시회원 격려 및 최선 당부**

**이현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9월 21~22일 이틀간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들과 「전남 및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애로사항과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도민의 협력이 바탕이 된 철저한 준비로 신도시를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10월 15일에는 예천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열린 「제4회 예천 전국 한시백일장」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온 3백여 명의 유림과 한시회원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유치 기자간담회」에 참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강조**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9월 8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포항시 승격 60주년 및 영일만항 개항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철강산업도시로 발전되어 온 포항시가 앞으로는 영일만항 개항으로 국제 물류도시로 도약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3만여 명의 시민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9월 1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 유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유치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대구·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것은 대구·경북이 갖추고 있는 뛰어난 의료 인프라 뿐만 아니라 550만 시·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치를 추진한 결과이며 시·도민의 사기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승화 강조**

**장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9월 18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관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9월 30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경주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다같이 조성 하자고 하였다.





**「형산강 정비사업 세미나」에 참석, 형산강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관심 필요 역설**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9월 4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형산강 정비사업 세미나」에 참석하여 형산강을 활용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문화관광 인프라개발 등의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가졌으며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9월 28일에는 포항시 죽도시장 변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죽도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국유사 문화의 밤」행사에 참석, 삼국유사와 군위를 널리 알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장병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2, 한나라)은 9월 26일 고로면 인각사 수변무대에서 삼국유사를 재조명하는 축제인 「삼국유사 문화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음악회, 뮤지컬 등을 관람하였으며 이번 행사로 인해 삼국유사와 군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10월 10일에는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도봉산에 위치한 신흥사에서 열린 「대웅전 낙성식」에 참가하여 불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신흥사가 불자의 수양과 기도의 도량으로 발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개관식」에 참석,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 재조명 역설**

**장세현** 통상문화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8월 29일 포항시 기북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농촌체험마을 조성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농업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9월 4일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 열린 「새마을운동발상지 개관식」에 참석하여 새마을정신이 현대에 재조명되는 가운데 문성리는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은 물론 역사적인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재조명하자고 역설하였다.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에 최선 다짐**

**전찬길**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울진군1, 한나라)은 9월 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울진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21세기 새마을 운동의 방향과 세계화 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1,000여 명의 새마을 가족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9월 10일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한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장애인 사무실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하회탈 e스포츠 한마당대회」에 참석, e스포츠산업과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 모색 강조**

**정경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안동시2, 한나라)은 9월 27일 안동체육관에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시e스포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안동 하회탈 e스포츠 한마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e스포츠산업과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회합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8일 안동시 새마을회관 앞 낙동강 둔지에서 열린 「안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1,200여 명 새마을 가족의 그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미래 녹색 새마을 운동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09 HOT 페스티벌」에 참석, 서울시민에게 영양고추 우수성 홍보활동 전개

**조동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영양1, 한나라)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09 HOT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2일에는 영양군 수비면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 「경상북도 여성부 베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보급에 힘써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2회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아 대회」에 참석, 모유수유 활성화 및 출산장려 운동 적극 전개 당부

**채옥주**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8월 28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경상북도간호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회를 계기로 모유수유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또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출산장려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가자며 격려했다.

또한 9월 4일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유네스코경북협회 주최로 개최된 「녹색운동을 위한 형산강 정비사업 세미나」에 참석해 형산강이 정비되어 침수피해를 막고 강주변이 공원으로 꾸며져 유람선이 운항하는 전국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 「2010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토론회」에 참석, 지방선거에 관심과 참여에 필요한 매니페스트운동 적극 전개 주장

**최윤희**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9월 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동남권신국제공항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5개 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지역이 어디인지 건설여건은 어떤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0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하고 시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매니페스트운동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경북에 적극 투자 호소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9월 2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수도권 CEO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살아 있고 동서6축고속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경상북도를 직접 보고 적극 투자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10월 21일 금호강둔치에서 가진 「함께해요 그린코리아 녹색새마을운동선포식 및 2009 새마을지도자 한마을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속의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과 새마을 회원간의 더욱더 단결하여 영천시 발전에 새마을단체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하였다.



### 「제11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더 향상시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 당부

**황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산시2, 한나라)은 9월 12일 경산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9월 24일 지역 여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경산시여성 활성화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해온 여성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더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이 행사를 통하여 더욱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여성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일보 | 7. 30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들이 내년 6. 2 지방선거 이후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 폐지를 요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오는 30일 제주도 라파다르프라자호텔에서 '2009년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회 최종 의결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건의

를 폐지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건의안대로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은 본회의로 일원화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했던 소속 시·도 교육위원회 해당 광역의회 의회와 관련 전국 "현행처럼 각 시·도" 관련 의결 사항들

일간대구경북 | 7. 31

방폐장 안전성 등 지원방안 모색

오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공사현장 방문

도의회 기획경제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방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애로점 등을 점검 확인하기 위

대구신문 | 7. 31

방폐장 공사현장 점검

경북도의회 경제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천·사진)는 31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방폐장 공사가 연약 지반으로 인한 보강 작업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공사 추진 상황과 애로점을 파악해



경북매일 | 8. 11

첨복단지 선정 "아쉬운 점 있지만 환영"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도의회 "산업전반 획기적 도약 계기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0일 정부의 장기 계획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확정, 발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처럼 선정된 것에 일부

아쉬운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진정한 승리"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로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는

대구신문 | 7. 30

김영만 道の의 농수산위원장

신임화에 밀려난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주목받으면서 김영만(군위·사진) 위원장의 활동 폭도 넓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농업도 이제는 국제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또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이 완성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 국제화와 관련, "식량 자급률이 30%를 밑도는 현실에 비춰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전략 및 경제인프라 기반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며 경북도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농업 개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초 김관중 경북도지사와 함께 동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경북도의 동물장부가 추진하는 '경북 동물농업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 경북도의 해외농



대구연합일보 | 8. 11

"농업 국제화 절실, "

업 개발을 현지에서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민시선평화 '명품농업개발과정' 개설, 동물농업 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지원해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을 위한 외형개선사업은 △우선 조례를 제정, 아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

치고 있다. 지난해 9월8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경북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3월 제228회 임시회에는 농수산위원회 '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경북도 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안했다.

경남일보 | 7. 31

교육위원회 최종의결권 폐지 건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제주에서 임시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구성될 교육위원회의 최종의결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일부 사안의 경우 본회의 의결없이 자체적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교육위원회가 해당 지역 광역의회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최종의결권을 본회의로 일원화하고, 사무직원 추천권도 해당 의회 의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북도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 하나가 되는데 최종의결권과 사무직원 추천권을 가질 경우 다른 상

"첨복단지 선정 진정한 승리"

도의회 성명 발표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발표하자 도의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처럼 선정된 것에 일부 아쉬운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진정한 승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로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는 쾌거는 시도민의 결집된 힘과 대구·경북 '상생의 협력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도의회는 '상생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은 물론 이를 기초로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봉 기자







대구연합 | 9. 10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관심 집중 '입법정책 중심' 의정활동 기대

경북도의회가 조례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 입법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일신문 | 9. 14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경상북도의회는 11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운영한다.

경북매일 | 9. 14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높였다

사용자 콘텐츠 보강... 의정홍보·편의성 최대화

경북도의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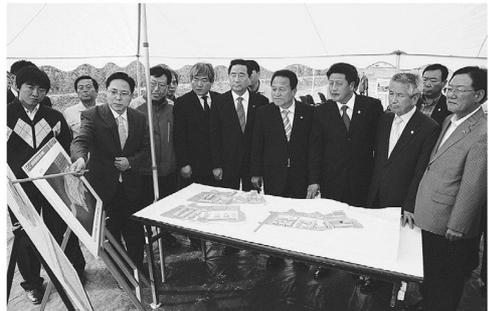
경상매일 | 9. 15

"헌신적인 고인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故 니규택 태의원 영결식, 의회장으로 엄수

입심사의 영결식도중 교통사고로 조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의무로 의정했던 태의원 의회장이..."

대구연합일보 | 10. 15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이 14일 상주시 협행읍 교촌리 '잠사군중사업장 이전지'를 방문해 박기동 잠사군중사업장장으로 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농업현장 다양한 의견 들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 확인 활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잠사군중사업장 이전지'를 방문 행을 성취할 예정이다.

경북일보 | 9. 21

도의회 도청이전특위, 전남·충남 방문

오늘·내일 이틀간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전남 도청과 충남도청을 방문,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한 추진을 위한 공조방안과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충남도청이전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예외 사항에 대해 도청이전에 필요한 지원요율 대책 및 국비확보 방안,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간대구경북 | 9. 23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구로 등 출 받아 오다 11일 새벽 2시 20분에 별세했다 고인의 치료 김구동 기자

경도일보 | 9. 23

경북도의회,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대책 등 논의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준)는 21, 22일 이틀간 전남도청과 충남도청을 방문,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청과 충남도청을 양면해 현지확인 활동을 펼쳤다.

신아일보 | 9. 25

경북도의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앞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애로사항 청취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지난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민속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하기 위해 도내 202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위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회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서 불우이웃을 위문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향후의 정황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시설방문 봉사활동

경북도의회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도내 202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경북매일 | 9. 29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활발한 활동

한우 우량암소 연구소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의원입법 지원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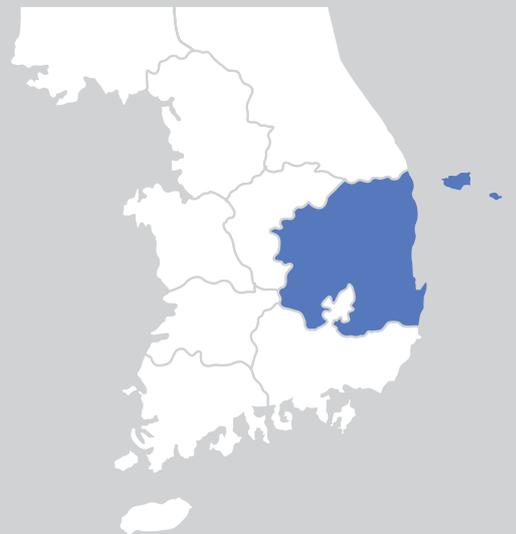
여정수 교수는 이 사업이 경북도의 축산농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일부 중박부분을 조정하고 아울러 실제 현장의 축산농들이 참여해 연구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했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자치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